

일반회계 21개항, 농특회계 24개항

1·3종漁港 시설비 1千245億원

전년비 14% 증액, 완공위주 집중투자

.....
 농특세 예산을 24개항에 해당 평균 36억원을 집중투자, 해상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태풍기 이전에 주요공정이 마무리 되어야 하고 또한 절대공기가 270일 이상 소요되므로 조기 착공을 위한 설계 계약을 서둘러 끝내야 할 실정이다.

최 문 환 / 수산청 어항과 서기관

어항개발 개관

어촌지역 사회의 핵심적 기반시설인 어항시설 확충은 수산분야 중요시책이다. 어항은 어선들이 이용하는 항으로서 어선이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도록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제시설과 어획물을 양륙하는 물양장등 어업활동의 근거지를 말한다.

어항의 주요기능은 어선을 안전하게 수용하고 또 우리 어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태풍이나 폭풍으로부터 보호한다. 또한 어민들이 피땀흘려 바다에서 잡은 어획물을

신속히 양륙처리하여 도시의 시장으로 최대한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기지로서 사회간접 자본시설이며, 도서와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의 거점으로 해양관광 레저등 친수활동과 어촌의 모든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어촌정주권의 핵심이 되는 결절지이다.

최근 들어서는 WTO체제 출범에 대응한 수산업경쟁력 강화와 낙후된 어촌지역의 생활개선이라는 수산행정 지표 실현하기 위한 기초적인 시설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어항시설은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제, 어획물을 하역하고 어선에 필요한 선수품을 보급하기 위한 물양장 등의 기본적인 시설과 유류 물 얼음 등을 공급할 수 있는 보급시설 냉장시설 가공공장 위판장등 유통시설 숙박·휴게시설 등 기능시설 복지시설등을 총괄하여 어항시설이라 말한다.

우리나라에는 '95.12 현재 국가 즉 수산청장이 관리하는 1·3종어항이 85개소이고,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2종어항이 326개소로 이들 모두 합하면 411개 항이다.

이밖에도 어항으로 개발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정 개발할 수 있도록 어항법에 특별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어항개발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다.

어항을 중심으로 어촌 정주환경 조성

지금까지 어항개발 현황은 현재 411개소의 1·2·3종 어항중에서 1995년 현재 231개 항을 완성하고 나머지 228개 항은 2004년까지 완공할 목표로 추진중이다.

어항개발이 다소 부진한 것은 투자가 저조하였기 때문이

다. 어항건설에는 제1종어항의 경우 1개항을 개발하는데 평균 약 200~300억원 상당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규모가 다소 작은 2종어항의 경우에도 평균 1개항에 70~8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95.12 현재 지정된 411개항의 총투자소요액이 2조1,900억원에 이르지만 투자액은 8,40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UR타결 이후

농어촌발전대책으로 농어촌특별세 예산중에서 어항건설분야에 7,800억원을 배정하여 오는 2004년까지는 현재의 지정어항 모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서 완공이라는 개념은 어항시설 기본계획상의 방파제 물양장 호안 진입로등 기본시설의 완공을 의미한다.

앞으로는 이러한 기본시설과 병행하면서 낚시 유람선 요트등 복잡한 도시의 생활속

※ '96 농특세 예산 투자항 항별 사업비

(백만원)

항 명	사 업 비	비 고
수 안 산	5,000	'96 완공
동 (경)	4,500	
축 대 산	3,480	
현 대 산	3,000	
대 포 변	5,000	'96 완공
모 향	4,500	
홍 원	3,000	
어 도	2,000	
말 청	5,000	'96 완공
격 도	5,000	
소 포	2,500	
수 산	2,250	
사 동	6,430	'96 완공
여 동	3,500	
내 서	1,500	
시 발	5,000	
물 산	2,500	'96 완공
욕 건	4,500	
지 지	4,500	
다 세	3,300	
도 포	3,000	'96 완공
도 포	2,000	
김 두	3,000	
위 념	3,000	
미	3,600	'96 완공
계	86,060	

에서 벗어나 어촌에서 즐길 수 있는 관광시설을 겸한 각종 레저시설도 조성하여 어장과 어항 어촌을 연계한 어항을 중심으로 한 어촌 정주환경이 조성되도록 하여 살기 좋고 소득높은 어촌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제까지는 어항개발 사업을 정부에서 전담하였으나, 1993.12 어항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민간사업자도 어항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촉진법에도 어항시설이 포함되어 개발이 더욱 촉진될 것이다.

'96 어항시설 사업

어항시설 사업비는 '95년보다 155억원이 늘어난 1,472억3,900만원이다.

이중 수산청 관리항인 1·3종어항 시설비는 1,245억원으로서 '95년도 예산액 1,093억원 보다 152억원이 더 늘어난 14%가 증액되어 완공위주 집중투자를 하게 되었다.

'96 기본투자 방향으로는 첫째 '96예산 편성내역에 포함되도록 '93이후 착공하여 계속투자중인 전남 초도항등 11개항과 기완공하였으나 시

설노후로 보수보강이 시급한 울릉도 저동항등 16개항 및 연안항에서 어항으로 전환 지정될 경북 경주군 감포항등 5개항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예산 384억7,700만원을 배정하여 계속투자항의 방파제 시설과 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시급한 항에 우선 투자토록 하였다.

'92년 이전에 착공한 전남 신안군 소흑산도항등 24개항에 대하여는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즉 농특세 예산 860억6,000만원을 배정하였다.

배정기준은 계속투자항에 대하여는 현장여건상 연내 준공이 가능한 범위내에 집중투자로 조기완공을 촉진토록 하였으며, 항별 잔사업비 규모를 감안, 차등 배정하였다.

경북 사동항, 전북 격포항, 경남 옥지항, 제주 위미항등 4개항은 '96년도에 완공할 계획이며, '97년에는 전남 시산항 내발항, 경남 물건항, 전북 말도항을 완공할 예정이다.

농특세 예산은 항별 투자액이 소흑산도항의 64억3,000만원을 필두로 항당 평균 36억원으로 집중투자하게 됨으로써 해상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태풍기 이전에 주요공정이 마무리되어야 하고 또한 시설

물량 준공을 위한 절대공기가 270일 이상이 소요되므로 조기착공을 위하여 설계 계약을 1/4분기에 서둘러 끝내야 할 실정에 있다.

어항시설은 사회간접자본시설로서 영구한 시설이어야 하며, 태풍 폭풍의 피해예방을 최소화하여야 하는 만큼 견실 시공 대책은 공사시공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이 되는 소흑산도항등 중요항은 전문감리단의 감리를 실시하고 강원도 사천전항 수산항, 전북 모항항등은 표사이동대책을 위한 수치 모형실험용역을 해상전문기술용역단에 의뢰하여 항내 매몰대책도 강구할 것이며, 전남 소흑산도항 국동항과 강원 남해항등은 시설구조물의 단면구조 형식의 적정성 및 시설노후에 대한 정비계획조사를 실시하여 어항시설 안전 및 이용도를 제고코자한다. 이와함께 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안목항, 모항항등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환경영향 최소화 및 민원소지를 예방코자 한다.

이상과 같이 어항시설의 시공 감리 정비조사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여 건설시공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